



창녕 관룡사 석불좌상 명문의 재검토

A Review of the inscription of the Stone Buddha Statue in Gwallyongsa Temple in Changnyeong

저자 (Authors)	박광연 Park, Kwang-Youn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연구 , (101), 2021.3, 143-166 (24 pages)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 (101), 2021.3, 143-166 (2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학회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41758
APA Style	박광연 (2021). 창녕 관룡사 석불좌상 명문의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01), 143-16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27 17:0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창녕 관룡사 석불좌상 명문의 재검토

박광연*

- I. 머리말
- II. 관룡사와 관룡사 석조유물의 역사
- III. 약사전 대좌 명문 후대 追刻의 근거
- IV. 맺음말

국문 초록

창녕 관룡사의 약사전에 있는 석조여래좌상(이하 '약사전불상')의 대좌에는 大曆七年(772), 용선대에 자리한 석조여래좌상(이하 '용선대불상')의 대좌에는 開元十(결락)이라는 연호가 중대석에 새겨져 있다. 이 두 대좌 명문은 8세기 신라의 지방 문화를 다루는 중요한 자료로서 다루어져 왔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약사전 대좌의 명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명문이 18세기에 추가된 것임을 논증하였다.

주장의 논거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팔공산동화사사적기』에도 '大曆 7年'이 등장하는데, 학계에서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成內'라는 신라 이두를 가져다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사학전공 조교수

대표논저 : 2020 「신라 하대 불교 정책의 변화와 사찰의 대응」 『영남학』 72 ; 2018 「史書로서의 『삼국유사』와 『고기』 연구의 흐름과 과제」 『진단학보』 130 ; 2017 「보살계 사상의 전개와 원효 『菩薩戒本持犯要記』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86.

졌지만, 신라 이두식 문장은 아니다. 셋째, 신라 석불좌상 가운데 '미륵' 명호가 새겨진 사례가 없고, 8세기 창녕 일대의 문화 속에서 미륵신앙은 설명하기 어렵다. 반면 18세기 관룡사에서 만든 가짜 경전 『상법멸의경』에서는 말법시대의 미륵신앙을 설파하고 있다. 넷째, 관룡사에 오랫동안 주석했던 설송 연초를 비롯한 편양파 불교도들은 불교계의 부흥을 이끌고자 하는 종교적 열정에서 영남 불교 사찰들의 역사를 가공하였는데, 관룡사도 그 가운데 한 곳이다.

한편 용선대 대좌 명문은 사실 관계를 추적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논증이 어렵지만, 약사전불상과 같은 배경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관룡사에 있는 석불좌상 두 구의 명문에 근거하여 8세기 초중반 신라의 지방 문화를 설명하는 것은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신라 불교, 미륵신앙, 관룡사, 지방 문화, 석불좌상

I. 머리말

1997년 창녕 관룡사의 약사전에 있는 석조여래좌상(이하 '약사전불상', 사진 1)의 銘文이 학계에 공개되었다.¹⁾ '大曆七年壬子四月十八日申'으로 시작되는 총 28자(6자 절락)가 삼단팔각대좌의 중대석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대력 7년은 서기 772년, 신라 혜공왕 8년이다. 2009년에는 관룡사 위쪽 용선대에 자리한 석조여래좌상(이하 '용선대불상', 사진2)에도 명문이 있다는 사실이 학계에 소개되었다.²⁾ 마찬가지로 대좌의 중대석에 글씨가 있었다. 판독되는 글자는 '開元十/月卅/成內'뿐이다. '개원십'은 개원 10년(722, 성덕왕21)~19년(731,

1) 하일식, 1997 「창녕 관룡사의 石佛臺座銘과 『觀龍寺事蹟記』」 『한국고대사연구』 12.

2) 최성은, 2009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소고-造像銘文과 중대신라 불교조각」 『신라 사학보』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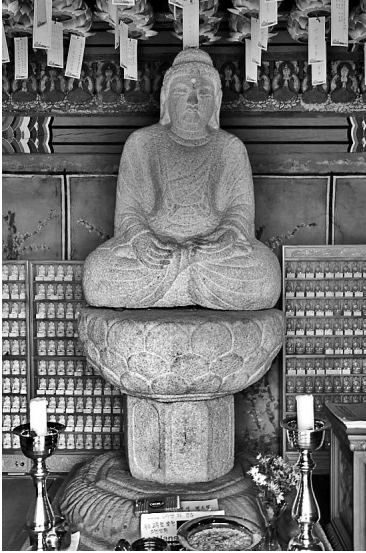


사진 1. 관룡사 약사전 석불좌상(네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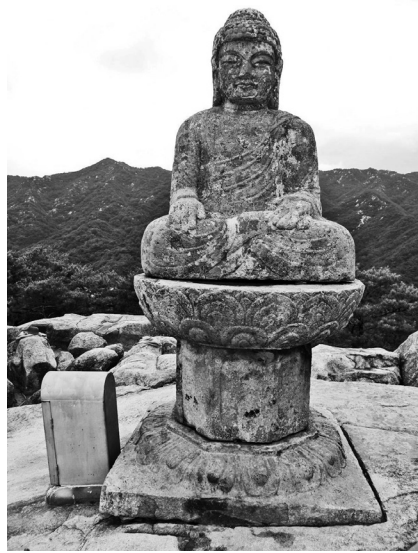


사진 2.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임영애)

성덕왕30) 사이이다. 이렇게 해서 소중한 8세기 금석문 자료 2개가 더해졌다.³⁾

약사전불상은 불상 양식상으로는 고려시대의 것이지만, 삼단팔각대좌의 중대석과 하대석은 신라 통일기의 것이라고 한다.⁴⁾ 따로따로 존재하던 것을 수습하여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 약사전에 모신 것이다. 현재는 일실되었지만, 약사전 대좌에 앉아 있던 통일신라시대 불상이 인근 지역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용선대불상은 양식적인 면에서도 통일신라의 것이 맞다고 한다. 그래서 명문이 공개된 초기에는 불상의 연대, 대좌의 연대, 명문의 연대가 일치한다고 보았다.⁵⁾ 용선대불상과 약사전 대좌가 8세기 신라의 것이고, 왕경이 아닌 지방의

3) 금석문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한국고대금석문 참조.

4) 하일식, 1997 앞의 논문, p.473.

5) 최성은, 2009 앞의 논문, pp.240~249. 7세기 후반 석불들(봉화 북지리 마애불좌상, 영주 가흥리 마애삼존불상의 본존상 등)과 공통적 양식을 많이 지니고 있고, 석굴암에 앞서는

것이라는 주장은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신라시대의 지방에 대한 연구가 금석문에 의존하는 바가 큰데, 8세기 전반 자료는 매우 적기 때문이었다.⁶⁾

명문이 소개된 후 관룡사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이어졌다. 8세기 전반에 용선대불상을 갖추었던 관룡사는, 일찍이 원효가 1천 명의 승려를 모아 놓고 『화엄경』 설법을 한 적이 있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원이었고, 경덕왕 때 중건되었다고 한다.⁷⁾ 開元 연간 즉 720년경에 창녕 일대에 홍수와 산사태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하는 바람에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마을 사람들이 용선대불상을 조성하였다고 해석하였다.⁸⁾

한편 용선대불상 및 대좌를 명문에 적힌 대로 720년대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우선 용선대불상의 원위치가 현재와 달랐다는 것은 용선대불상에 얽힌 사연에 대한 의문을 유발한다.⁹⁾ 미술사에서는 용선대불상이

항마촉지인의 초기 형태이며, 팔각연화대좌도 중대석의 높이나 받침 개수·장식이 8세기 중후반이나 9세기의 것과는 다른 8세기 전반의 작품이라고 하였다.

- 6) 이른 시기의 금석문 자료로는 기축명아미타불비상(689), 연화사무인명불비상(678), 무진사중명(745), 영태2년명탑지(766) 등이 있다. 금석문을 활용한 지방 불교 연구는 8세기 후반 이후의 것들이 대부분이다. 윤선태, 2005 「新羅 中代末~下代初의 地方社會와 佛敎信仰結社」 『신라문화』 26 ; 정병삼, 1996 「9세기 신라 佛敎結社」 『한국학보』 22-4 등 참조.
- 7) 장일규, 2012 「창녕 관룡사의 신라 불교사적 위상」 『신라사학보』 26, pp.58~60.
- 8) 채민석, 2017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의 조성 배경과 단일 세력」 『신라사학보』 41.
- 9) 『법보신문』 2009.08.25. 강순형의 사찰문화재 답사 '관룡사18-龍船臺 돌부처 얼굴'에서 연대문제를 다루고 있다. 신문 기사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개원10(722, 성덕왕 21)해쯤 것이라 할 때, 전문가 모두가 여태 9세기로 봐오던-부처상뿐만 아니라, (돌)빛깔도 아예 다른 받침이자 연꽃무늬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더구나, 절마당 약사전에 있는-이를 보고 베풀었다는 같은 꼴形式 돌부처는, 또한 가운데받침에 772(혜공왕8)해의 글이 새겨져 있음에도 고려부처로 보고 있어 잣대가 이랬다저랬다니... 오히려, 약사전의 받침(772)이 연꽃무늬를 비롯, 용선대 부처와 맞고 있다-곧, 용선대 부처는 차라리 750해 너머以後의 8세기로 보는 건 어쩔지~! 함께 한 석등 밑받침下臺 연꽃무늬와 경주 남산 용장사 태현太賢스님의 (돌)미륵부처·삼릉곡 (돌)약사부처들과도 대보고 하여. 용선대의 글씨가 몹씨도! 기늘고 얇게 새겨져 있는데다, 갈항사 동탑에서 보듯-758해에 새겼다하

양식상 8세기 것이 아니라 기존 견해대로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재해석도 이루어졌는데, 그 근거로 수인이 8세기 후반-9세기 전반 불좌상에서 애용된 것이라는 점, 8세기 전반으로 비정되는 삼단 팔각연화대좌가 경주는 물론 唐에도 없다는 점, 창녕 지역에 8세기 중엽 이전의 불교 유물이 없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¹⁰⁾ 그러면서 불상·대좌와 발견된 명문과의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약사전대좌의 명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명문의 작성시기를 다시 비정해보고자 한다. 고대사 연구에서 금석문은 문헌보다도 사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비교하였을 때 금석문은 當代性을 지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석문도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¹¹⁾ 관룡사 석불좌상의 명문이 후대에 追刻되었을 가능성을 역사학적 관점에서 제기하고, 追刻을 주도한 이들이 누구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한다.¹²⁾ 이는 불교 유물을 史料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고증 작업으로서, 고대사 연구에서 불교 자료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한다. 많은 가르침을 바란다.

나 내용은 훨 더 늦은 781해 때니 참으로, 적는 글이야말로 가장 믿을 수도 또, 아주 못믿을 바이기도 한 것이다.”

- 10) 임영애, 2016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의 새로 발견된 '명문'과 '양식' 문제」 『신라 문화』 47, pp.65~74.
- 11) 「扶餘 唐平百濟國碑」를 예로 들 수 있겠다. 무열왕 7년(660) 唐 高宗이 무열왕과 힘을 합쳐 백제를 멸망시킨 사적을 기록한 문장이 백제의 대표적인 탑인 정림사지 오층석탑에 새겨져 있다. 석탑의 건립연대와 문장의 작성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 12) 영남 지역 사찰들 가운데는 연대를 사실로 인정하기 힘든 유물을 지닌 사찰들이 존재하고(쌍계사의 六祖頂相塔 등), 사료로 증명하기 힘든 사찰 역사를 실은 사적기를 지닌 곳들도 많다. 그러므로 영남 불교계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창녕 관룡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 관룡사와 관룡사 석조유물의 역사

관룡사 및 관룡사 석조 유물의 역사에 대한 의구심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는 관룡사가 과연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사찰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용선대불상이나 약사전 대좌가 과연 8세기부터 관룡사에 있었는가이다.

우선 관룡사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보았다. 관룡사의 역사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문헌은 申維翰(1681~1752)의 본문[1733년, 영조9]과 明學의 발문[1734, 영조10] 등으로 구성된 『觀龍寺事蹟記』로, 하일식의 논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이 사적기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약사전만 불타지 않았고 약사전 수리 시에 ‘永和五年己酉’라는 글자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해당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樑頭와 疊木이 교차하는 곳에서 ‘永和五年己酉’라는 題字를 얻었다.

지금 ‘약사전을 진 목제 永和五年己酉에 터를 잡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얻었다는 것은 오직 대들보 사이의 목서이다.

약사전을 동진 穆帝 영화 5년(349)에 처음 짓기 시작하였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¹³⁾ 이에 대해 하일식은 이 이야기가 口傳이며, 이 기록 때문에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사찰 기원을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¹⁴⁾ 이 해석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¹⁵⁾ 사찰의 연원이 오래 되었음을 말하는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관룡사사적기』뿐만 아니라, 17세기 후반~19세기 불교계에서 만들어진 많은 寺誌類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난으로 많은 사찰들이 파괴되었다. 관룡사도 예외

13) 하일식, 1997 앞의 논문, pp.485~488에 수록된 원문 참조.

14) 하일식, 1997 앞의 논문, pp.478~483.

15) ‘영화 5년(349)’에 주목하여 창녕 지역의 가야시대 불교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진 3. 관룡사 약사전(문화재청)



사진 4. 관룡사 대웅전(문화재청)

가 아니었다. 지금의 관룡사는 1617년(광해군 9), 1749년(영조 25)의 거듭된 중창으로 갖추게 된 모습이다. 유일하게 약사전 건물이 불타지 않았다고 하나, 건립 연도를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로 소급할 수는 없다고 한다. 즉 약사전 안의 대좌 일부는 신라시대, 약사전불상과 약사전 마당의 석탑은 고려시대의 것이지만, 건물 전체는 건축 양식상 조선 전기의 것이라고 한다.¹⁶⁾

중창 이전 대웅전의 건립 연도는 상량문을 통해 확인되었다. 1965년 8월 20일에 대웅전을 해체 보수하던 중 중앙 칸 宗道里(용마루 밑

에 서까래가 걸리게 된 도리)에서 상량문이 발견되었고,¹⁷⁾ 여기에 '自大明建文元年己卯 在位四年辛巳三月日初創'이라는 구절이 있었다. 대웅전은 건문원년 기묘 즉 1399년 정종 1년에 짓기 시작하여 정종이 재위한 지 4년째인 신사 즉 1401년 3월에 완공되었다.¹⁸⁾ 대웅전보다 약사전을 먼저 건립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16)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보물 제146호 昌寧觀龍寺藥師殿」.

17) 김주태, 1965 「觀龍寺大雄殿上樑文」 『美術史學研究』 63·64, p.142.

하는데,¹⁹⁾ 앞에서 약사전이 조선 전기의 건물이라는 본 견해와 절충하면 약사전은 조선 건국 직후에 건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관룡사 관련 기록들을 찾아보면, 8세기는 물론이고 고려시대의 것도 없다. 인근에서 관룡이 지명으로 쓰인 예도 검색상으로는 찾기가 힘들다. 한편 관룡사의 옛주소는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292인데, 여기서 ‘옥천’은 관룡사 아래에 있던 玉泉寺(玉川寺)에서 비롯되었다. 지금은 절터만 남아 있지만, 고려말 신돈의 어머니가 노비로 있었다는 계성현의 옥천사가 이곳이다.²⁰⁾ 그러므로 옥천사가 고려 말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인근의 계곡도 옥천계곡이라 불리는 것을 보면, 마을 사람들에게는 관룡사보다 옥천사가 더 알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관룡사가 신라시대부터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이었다는 것이 과연 역사적 사실일까?²¹⁾ 관룡사가 지금 같은 규모를 갖춘 것은 중창 이후인 18세기다. 관룡사에 雪松 演初(1676~1750)가 오랫동안 주석하였는데,²²⁾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淸虛系인 鞭羊 彦機(1581~1644)의 嫡傳인 喚醒 志安(1664~1729)의 제자였던 설송 연초는 18세기 영남 불교계에서 유명 인사였다.²³⁾ 운문사, 통도사 같

18)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정종이 1398년 9월 즉위하여 재위 3년째인 1400년 11월 11에 왕세자(태종)에게 선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辛未上禪位于王世子], 여기서는 1401년 3월을 정종 재위 4년으로 말하고 있다.

19) 하일식, 1997 앞의 논문, p.483.

20) 『고려사』 권132, 열전 권 제45, 叛逆, “辛毗, 靈山人, 母桂城縣玉川寺婢也.” 玉川寺와 玉泉寺를 혼용한 듯하다.

21) 장일규, 2012 앞의 논문, p.56에서 관룡사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사찰전서』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기록들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로 고대사史料로서 활용하기 어렵다.

22) 남동신, 2001 「조선후기 불교계 동향과 『상법멸의경』의 성립」 『한국사연구』 113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다.

23) 박광연, 2020 「가자산 석남사의 도의 창건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불교학보』 91에서 조선 후기 불교계의 法統·門派 중시 풍토와 설송 연초의 법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

은 巨刹을 비롯하여 영남 사찰들의 중수와 부흥 사업에 그가 관여하였다. 연초와 그의 제자들은 영남의 주요 사찰들의 장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²⁴⁾ 사찰의 중수 과정을 정리한 사적기의 편찬에도 연초는 관여하였다. 1733년(영조9) 『관룡사사적기』 편찬을 주도한 明學은 연초의 문인으로서 연초로부터 『楞伽經』 등을 배웠다. 연초는 사적기 본문을 쓴 신유한과도 친분이 있었다.²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관룡사는 조선 초에 창건되었고 양난 후 중창을 거치면서 영남 불교계를 대표하는 사찰로 성장하였다고 판단된다. 현재 관

다.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7세기 초반까지는 (명명)나옹법통설이 주류였는데, 1620년대에 편양 언기가 (임제)태고법통설을 주장한 후 점차 청허계의 다른 문파들도 태고법통설을 수용하면서 조선후기의 불교계는 임제종 법맥이 주류를 이루었다(김용태, 2010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pp.189~190). 설송 연초가 18세기 영남 불교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찰을 증흥하고 나아가 사찰의 역사를 '창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환성 지안의 제자였기 때문이었다. 청허 휴정의 말년 제자인 편양 언기로부터 시작하여 풍담 의심-월담 설제-환성 지안으로 이어지는 계보이다. 설송 연초는 운문사에서 출가하여 사명 유정의 후손인 銘巖 石梯(사명파)에게 배운 뒤 환성 지안(편양파)의 법을 이었다. 그는 통도사에 오래 주석하였고, 입적 후에 탑과 비가 입적자인 통도사와 출가 사원인 운문사에 세워졌다(김용태, 2019 「환성 지안의 총통 계승과 선교 융합」 『남도문화연구』 36 참조). 환성 지안의 제자로 설송 연초, 虎巖 體淨(1687~1748), 錦溪 元宇(1675~1740), 碧霞 大愚(1676~1763), 華月 性訥(1690~1763), 涵月 海源, 龍巖 信鑑, 抱月 楚玟 등이 알려져 있다. 연초, 체정, 해월, 초민 등이 18세기 전반 영남에 세거하고 있던 사명계, 소요계, 벽암계 승려 문중과 협력과 경쟁을 거듭하며 19세기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승려문중으로 성장하였다(이용운, 2020 「19세기 후반 영남의 喚醒系 僧侶門中과 四佛山畫派 畫僧」 『남도문화연구』 39 참조).

24) 그러한 사찰들 가운데 한 곳이 彦陽 石南寺다. 18세기 전반 朗空 行寂(832~916)의 부도가 있던 언양 석남사가 道義가 입적한 가지산 석남사로 탈바꿈되었는데, 『석남사사적기』에서도 연초의 이름이 확인된다(박광연, 2020 앞의 논문, p.107). 1738년(영조14) 사명대사의 사당으로 세운 밀양 表忠祠가 사액을 받는 데 성공한 것도 표충사를 증창한 연초와 그의 제자 남봉의 공이었다(장동표, 2000 「조선후기 밀양 표충사(表忠祠)의 연혁과 사우(祠宇) 이건 분쟁」 『역사와현실』 35, pp.150~151).

25) 남동신, 2001 앞의 논문, p.133.

룡사에 있는 용선대불상, 약사전불상과 대좌, 약사전석탑 등 조선시대 이전 유물들은 조선 초 관룡사를 창건할 때 혹은 양난 후 중창하면서 불상·불화 등으로 장엄하고 사찰의 규모를 키워나가던 때에 인근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수습하여 관룡사에 모았던 것으로 보인다.²⁶⁾ 현재로선 석조 유물들의 원 위치는 알 수 없다.²⁷⁾ 여기서 앞에서 제기한 두 번째 의문점, 즉 용선대불상이나 약사전 대좌가 과연 8세기부터 관룡사에 있던 것이 맞는가에 대한 답을 하자면, 이것들이 신라 시대부터 현재의 관룡사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그렇다고 이것들이 신라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아니다.

III. 약사전 대좌 명문 후대 추적의 근거

이제 남은 문제는 용선대 대좌와 약사전 대좌에 새겨진 명문이 8세기 전반, 8세기 중반에 새긴 것이 맞는가를 판단하는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미술사적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용선대불상이 8세기 전반의 것인가,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의 것인가 하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 임영애는 용선대불상의 양식뿐만 아니라 대좌 명문의 외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²⁸⁾

첫째, 불상 및 대좌의 크기에 비하여 글자 크기가 작고 췌이 얇다.

-
- 26) 관룡사 북쪽의 화왕산으로 오르는 길 옆에 자리한 승탑도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한다. 이외의 관룡사에는 있는 유물들은 모두 조선후기의 것이다. 1630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대좌(보물 제1730호), 1652년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18세기 전반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보물 제1816호) 등의 유물이 있다. 1791년 관룡사감로왕도는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27) 용선대불상의 위치 이동에 대해서는 『법보신문』 강순형의 글(2009) 및 임영애, 2016 앞의 논문, pp.63~64 참조.
- 28) 임영애, 2016 앞의 논문, pp.60~62.

둘째, 명문 결락 부분이 마모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²⁹⁾

셋째, 다른 신라시대 불상의 경우 명문을 광배에 새겼다. 대좌에 명문이 있는 사례는 관룡사 용선대 대좌와 약사전 대좌가 유일하다.

넷째, 대좌 중대석의 높이가 8세기 후반 이후의 것들과 유사하다.³⁰⁾

한 마디로 불상뿐만 아니라 대좌도 명문의 연도와 제작 시기가 불일치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양식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불상이나 대좌의 양식에 근거하여 명문의 신빙성을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앞서 관룡사 역사를 살펴본 결과 두 불상과 대좌가 신라시대부터 관룡사에 있던 것이 아니라 조선초 창건 때 혹은 17~18세기 관룡사 중창 과정에 옮겨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단계에서 명문이 추각되었을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해보았다.

약사전불상의 대좌 명문은 다음과 같다.

[01] 大曆七年壬子四月

[02] 十八日中不還法師

[03] 法師并二人應

[04] 成內彌勒

大曆七年壬子四月十八日中 不還法師法師并二人 應成內彌勒

29) 명문의 글씨를 분석한 정현숙이 '마모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刻字의 흔적이 없는 매끈한 상태라고'한 견해와 일치한다. 정현숙, 2014 「창녕지역 신라금석문의 서풍」 『서예학 연구』 24, p.39.

30) 삼단팔각연화대좌는 석굴암 본존불부터 시작되었는데 중대석이 8세기 중엽의 것(보리사석불좌상, 석남암사비로좌나불상)은 정사각형 형태이고, 8세기 후반 이후 높아진다고 한다. 임영애, 2011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통일신라 수용과 전개」 『신라문화』 38, pp.288~290.

대력 7년 임자년 4월 18일에 불환법사, □□법사, 아울러 두 사람이 응하여 (결락) 미륵을 이루었다.

이 문장에서 ‘大曆七年壬子’와 ‘成內彌勒’ 문구에 대해 천착해보겠다. 우선 ‘大曆七年壬子’이다. 대력은 당 代宗의 네 번째 연호로, 766년에서 779년까지 사용하였다. 대력 7년은 서기 772년, 혜공왕 재위 8년에 해당하는데, 흥미롭게도 대구 동화사의 역사에도 대력 7년이 등장한다. 梵玖가 1725년(영조1)부터 1732년(영조8)까지 동화사를 중창하면서 이에 대한 기록과 사적을 함께 모아 편집한 『八公山桐華寺事蹟』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齊武帝 영명 11년(493) 계유 바로 신라 문자왕 때 승 보조가 창건하여 유가사라 이름하였다. 그 이름 ‘동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이야기가 전한다.) 신라 때 심지왕사가 속리산에 이르러 영심법사를 참방하여 훗날을 기약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심지가 도가 높고 신령하고 기이한 자취가 많자 영심이 알아차리고 예참간자를 돌려주었다. 심지가 받아서 팔공산에 이르러 서쪽을 향해 간자를 던지자 간자가 날아가 桐林의 작은 우물에 떨어졌다. 마침내 이곳에 절을 갖추어 절 이름을 바꾸고 그 간자를 두었다. 승도들의 말에 이르기를, 이 이야기는 허황된 것이 많아서 기록하기 부족하다고 한다. 이 일은 대력 7년에 있었고 대개 재창인 것이다.³¹⁾

심지가 영심에게서 (진표의) 예참간자를 받아 팔공산으로 돌아와 유가사를 중창하고서 동화사라고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의 대강은 『삼국유

31) 梵玖(朝鮮) 編, 『八公山桐華寺事蹟』, “齊武帝永明十一年癸酉 直新羅文咨王之世 僧普照朔建 而名以瑜伽者也. 其名棟華 則新羅時 心地王師 至俗離山 參永深法師 以後期不許. 地道高靈異迹多 深感回授禮懺箇子. 地受而至八公山 向西擲其箇 箇飛落桐林之小井. 遂構寺於此 而改寺號 眞其箇. 僧徒之言云 爾語多荒誕 不足脩記. 此在大曆七年 蓋再創也.”(규장각 소장, 청구기호 奎5939)

사』 「심지계조」와 유사하다. 다만 심지가 동화사를 증창한 해가 大曆 7년(772)이라고 하였는데, 심지는 헌덕왕(재위 809-826)의 아들이기 때문에 연도가 맞지 않는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팔공산동화사사적』의 대력 7년이라는 연도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³²⁾

조선 후기 불교지식인들에게 지금과 같은 철저한 역사 고증을 기대하는 건 무리인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시간 인식이 지금과 달랐던 것인지, 동화사와 관룡사 비슷한 시기에 사원 증창을 진행한 두 사원에서 ‘대력 7년’이라는 동일한 허구의 연도가 등장하는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물론 동화사는 사적기에, 관룡사는 대좌에 적었다는 점이 다르지만, 『팔공산동화사사적』에서 9세기의 일을 대력 7년이라 한 것처럼, 관룡사에서도 9세기의 불상과 대좌를 8세기의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 하필 대력 7년일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8세기 중반 무렵 국정상 난제를 타개하기 위한 국왕 주도의 불사가 활발해진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삼국유사』에는 경덕왕 때의 佛事나 승려들에 대한 이야기가 유독 많다.³³⁾ 경덕왕의 개인적인 불심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재위 13년(754) 이후 여수선한 사회 문제를 표훈, 월명, 충담 같은 승려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³⁴⁾ 혜공왕은 재위 초반에 천재지변과 잦은 반란에 직면하였다. 혜공왕 4년(768)에는 大恭과 大廉의 난이 있었고,³⁵⁾ 혜공왕 6년(770) 8월에는 2월에 김유신의 후손인 金融의 난이 있었다.³⁶⁾ 이런 외증에 혜공왕은 경덕왕이 주

32) 김창겸, 2013 「신라 승려 心地 연구-『삼국유사』 「心地繼祖」와 관련하여」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34, p.210. 절 이름을 유가사에서 동화사로 바꾸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팔공산이라는 명칭도 고려후기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33) 경덕왕이 행한 불사로는 황룡사중 주조(754), 분황사 약사여래동상 주조(755), 굴불사 창건, 영묘사 장육존상 개금 등이 있다(『삼국유사』 권3, 탑상제4). 김상현, 1999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pp.107~137.

34) 전보영, 2013 「경덕왕과 승려의 교류양상과 의미」 『사학연구』 112, pp.60~68.

35)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혜공왕 4년 7월.

조하던 성덕대왕신종을 완성하였고(771),³⁷⁾ 훗날(778) 김유신 무덤에 가서 사죄하고 취선사에 공덕보전 30결을 내려 명복을 빌게 하였다.³⁸⁾ 그 뒤에도 반란은 끊이지 않았고, 혼란한 정국을 불교의 힘으로 잠재우고자 하는 바램에서 佛事도 계속되었다.³⁹⁾

다음으로 ‘成內彌勒’을 살펴보겠다. ‘成內’는 신라 불교 유물에 자주 등장하는 이두 표기로 ‘이루다’라는 의미이다. 석남암사 비로자나불상 사리호(766)가 가장 빠른 기록이고, 이후 9세기, 10세기 유물에도 등장하고 있다.

永泰二年丙午七月二日……爲石毗盧遮那佛成內(石南巖寺址石造毘盧遮那佛坐像
巖石舍利壺, 766)

貞元廿年甲申三月廿三日 當寺鍾成內之(襄陽禪林院址鍾, 804)

太和七年三月日 靑州蓮池寺鍾成內節(靑州蓮池寺鍾, 833)

大中卅年丙子八月三日 窺興寺鍾成內矣(窺興寺鍾, 856)

天復四年甲子二月廿日 松山村大寺鍾成內文(松山村大寺鍾, 904)

위 사례들을 보면 ‘石毗盧遮那佛成內(석비로자나불을 이루다)’, ‘靑州蓮池寺鍾成內(청주 연지사종을 이루다)’ 와 같이 ‘成內’의 대상이 앞에 나오고 있다. 반면 약사전 대좌 명문에는 대상인 미륵이 ‘成內’의 뒤에 등장하는 점이 다르다. 그동안 어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는데, 약사전 대좌 명문은 신라 이

36)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혜공왕 6년 8월.

37) 『삼국유사』 권3, 塔像第4, 皇龍寺鍾芬皇寺藥師奉德寺鍾.

38) 『삼국유사』 권1, 紀異第1, 末鄒王竹葉軍.

39) 조선 후기의 사적기 등에서 사찰의 역사를 실제 사건보다 오래된 것으로 묘사하는 경향은, 다른 사적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 조심스러우나, 조선후기 불교도의 불교적 시간관(正法·像法·末法)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조선후기 사적기의 고대사 인식 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두식 문장이라기보다 신라 이두 표현을 차용한 것일 뿐이다.

한편 신라인들이 사용하던 이두를 조선 후기에 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명문을 새긴 것은 신라 當代가 맞다고 한다. 이 주장이 맞으려면 조선 후기 사람들이 ‘咸內’ 같은 이두를 전혀 몰랐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지하듯이, 조선시대 전국의 胥吏들은 이두로 행정문서의 초고를 작성하였다. 『儒胥必知』는 일반 서리와 牧民官이 일상적으로 다루어야 할 公文의 서식과 여기에 쓰이는 이두를 설명한 책으로, 19세기 초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목민관들은 서리가 이두로 쓴 문서를 읽어야 했기에 당연히 이두를 알았을 것이다. 『유서필지』에는 당시 자주 사용하는 이두를 모아놓은 「吏讀彙編」을 부록으로 실고 있다. 이두의 어휘를 1字類에서 7자류로 분류하여 모두 244어를 실었다.⁴⁰⁾

「이두휘편」에 앞서 16~17세기에 서사된 『吏文』과 『吏文大師』가 있고, 『吏文雜例』, 崔世珍의 『吏文輯覽』, 『吏讀便覽』 등의 이두 학습서들이 있었다.⁴¹⁾ 이처럼 조선 후기에는 이두 정리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행정문서에서 사용한 이두와 신라 때 사용하던 이두가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수차례 이두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이전에 사용하던 이두들도 알았을 수 있다.⁴²⁾ 그러므로 18세기 관룡사 장엄을 주도하던 이들이 석불좌상이 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咸內’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彌勒’이라는 표현도 특별하다. 신라시대 석불좌상 가운데 미륵이라는 명문을 가진 다른 사례가 있는가? 신라 불상 가운데 명확히 ‘미륵’ 명문이 확인되는 것은 다음의 사례들뿐이다.

40) 강전섭, 1972 「『유서필지』에 대하여」 『어문학』 27 ; 박형익, 2003 「유서필지의 이두휘편」 『한국어학』 20 등 참조.

41) 김성주, 2017 「『吏讀便覽』의 吏讀와 吏文에 대하여」 『구결연구』 39 참조.

42) 조선 후기 이두 학습서 전체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 A. 作彌勒石像一區高三丈 菩薩二區(斷石山神仙寺磨崖佛像)
- B. 敬造甘山寺一所 石阿彌陀像一軀 石彌勒像一軀(甘山寺石造彌勒菩薩立像, 719)
- C. [左]太和四年庚戌三月二日成 (결락) [右]彌勒佛(太和四年銘磨崖如來立像, 830)



A



B



C

불교 수용 초창기부터 등장하는 반가사유상을 일반적으로 미륵보살로 보고 있고, 7세기 전반으로 비정되는 단석산마애불의 거대한 입불상이 미륵이다. 남산 장창곡에서 발견한 삼존불 가운데 본존이 의좌 형식의 미륵이며, 감산사 미륵보살상은 입상이다. 통일신라시대로 편년되는 석불좌상들은 비로자나불⁴³⁾ 이외에는 특정 명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⁴⁴⁾

그런데 관룡사 약사전의 대좌에는 왜 ‘미륵’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일까? 8세기 창녕의 미륵신앙을 말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는 없다. 반면 관룡사를 비롯한 조선 후기 불교계의 분위기 속에서는 손쉽게 ‘미륵신앙’을 설명할 수 있다.

43) 「산청석남암사지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밀양천황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 「영주비로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이 있다.

44) 「경주남산미륵곡석조여래좌상」, 「영주흑석사석조여래좌상」, 「합천청량사석조여래좌상」 등이 있다.

관룡사에서는 『관룡사사적기』를 편찬한 직후 『像法滅義經』이라는 가짜 경전(찬술 경전)을 간행하였다. 1735년(영조11)의 일이다. 간행 시점으로 보아, 사적기와 가짜 경전 프로젝트는 동일한 세력이 동시에 진행하였을 것이다. 고려시대의 『現行西方經』,⁴⁵⁾ 『三十八分功德疏經』⁴⁶⁾처럼 현재까지 밝혀진 한국 찬술 경전이 손에 꼽히는 가운데 18세기 조선에서 찬술 경전이 간행되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상법멸의경』에서는 末世의 재난이 있는 뒤에 미륵불이 용화대회에서 설법하는 이상세계를 말하고 있다.⁴⁷⁾ 이는 양난 이후 말법시대를 구제할 미륵불의 출현을 염원하는 미륵신앙이 유행하던 시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1627년 무량사와 장곡사에서는 괘불에 미륵불을 담았고,⁴⁸⁾ 마을마다 파괴된 불상이나 입석을 미륵이라 부르며 신앙하였다.⁴⁹⁾ 민간신앙화된 미륵신앙이라 할 수 있는데, 숙종대(재위 1674~1720)의 연이은 ‘生佛’ 출현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다고 한다.⁵⁰⁾ 미륵불의 하생을 말하는 경전 하나쯤 만들어질 만한 분위기였고, 흥미로운 것은 그 경전을 만든 곳이 관룡사라는 것이다. 설송 연초를 비롯한 관룡사 승려들은 시대 분위기를 읽어내고, 한편으로는 만들어가는 ‘크리에이터’였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팩트보다는 픽션을 추구하는 스토리텔러였다.

관룡사의 승려들은 관룡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관룡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약사전이 ‘永和 5년(349)’에 처음 짓기 시작하였음을 강조함과 더불어 약사전 불상을 통해 관룡사가 ‘大曆 7년(772)’ 즉 신라시대부터 미륵이 신앙되던 곳이었

45) 남동신, 2005 「여말선초의 僞經 연구-『現行西方經』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4.

46) 박영은, 2015 「고려 후기 『功德疏經』 신앙의 의의-『三十分功德疏經』과 『三十八分功德疏經』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49.

47) 이병욱, 2019 「조선시대의 미륵사상과 신앙의 4가지 유형」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1 참조.

48) 박선영, 2012 「朝鮮後半期 彌勒佛掛佛圖 研究」 『강좌미술사』 39, p.140.

49) 김방룡, 2017 「조선후기 미륵신앙의 형성과 전개」 『한국불교사연구』 12, p.234.

50) 최선혜, 2013 「조선후기 숙종대 황해도 지역의 ‘生佛’ 사건」 『역사학연구』 50 참조.



사진 5. 용선대불상 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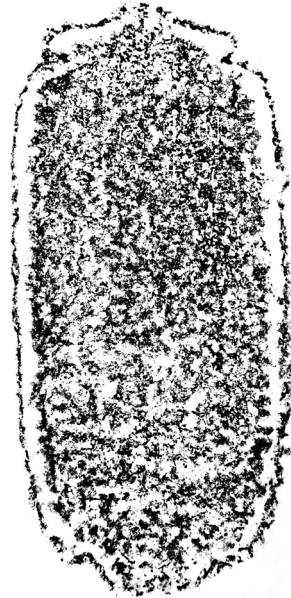


사진 6. 용선대불상 명문 탁본

다고 말하였을 것이다. ‘영화 5년’과 마찬가지로 ‘대력 7년’ ‘미륵’은 더 많은 신도들을 관룡사로 이끄는 역할을 하였을 것

이다. 양난 이후, 조선 전기에 비하여, 불교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적 대우가 조금은 달라졌고, 이렇게 변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불교의 부흥을 이끌고자 했던 설송 연초를 비롯한 불교도들의 종교적 열정이 사찰 역사의 加工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용선대불상 명문도 후대에 추각되었을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명문 내용이 너무 짧고 제작연일도 명확하지 않아서 내용상 논증이 어렵다. 開元

觀龍寺龍船臺佛像	[1행]開元十 [2행]月廿 [3행]成內
甘山寺石造彌勒菩薩立像	開元七年己未二月十五日
甘山寺石造阿彌陀如來立像	開元七年歲在己未二月十五日
上院寺銅鍾	開元十三年乙丑三月八日鍾成記之

연호가 있는 다른 명문과 표기 방식을 비교해볼 수 있을 뿐이다.

신라 금석문 가운데 開元 연호가 들어간 유물로는 甘山寺石造彌勒菩薩立像, 甘山寺石造阿彌陀如來立像, 上院寺銅鍾이 있다. 명문에는 공통적으로 ‘年’ 다음에 간지가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1행] ‘開元十’ 다음에는 간지를 포함하여 최소 4字(年壬戌□)에서 8~9字(□年歲在□□□)가 있을 것이다. 글자가 적힐 공간은 충분하다. [2행] ‘月廿’ 다음에 글자가 있었다면 날짜와 조성 주체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면, 약사전 대좌보다 훨씬 많은 글자가 있었던 셈이 된다. 마지막 3행 ‘成內’ 다음에는 무슨 글자가 있었을까? 약사전 대좌처럼 존격명이 있었을까? 판독은 되지 않지만 지금의 3행 옆에 한 행이 더 들어갈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도 글씨를 새겼을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다만 마멸된 것이 아니라 새기지 않은 것 같다는 선행 연구의 판단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IV. 맺음말

고대 창녕지역 불교 문화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관룡사약사전석조여래좌상」 명문과 아울러 「관룡사용선대석조여래좌상」 명문의 사료적 가치를 심층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지금까지 ‘大曆七年’ ‘開元十’이라는 대좌 명문의 연도에 의거하여 관룡사가 8세기 이전부터 창녕을 대표하는 사찰이었다고 보아 왔지만, 본고에서는 이 명문들이 조선 후기에 追刻되었을 가능성을 논하였다. 역사 연구에서 불교 자료가 지니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8자가 남아있는 약사전 대좌의 명문에 대해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大曆 7年’이 『팔공산동화사사적기』에도 등장하는데, 동화사의 ‘대력 7년’이라는 연도는 심지와 활동 연대와 비교하여 학계에서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成內’의 용례를 살펴본 결과, 신라의 금석문들에서는 일관되게 조성 대상을 ‘成內’ 앞에 쓴 반면 약사전 대좌에서는 뒤에 쓰고 있다. 즉

신라 이두 표현을 가져다 썼지만, 신라 이두식 문장은 아니다. 셋째, 신라 석불좌상 가운데 ‘미륵’ 명호가 새겨진 사례가 없고, 8세기 신라 지방 문화 속에서 미륵 신앙은 설명하기 어렵다. 반면 관룡사에서 『관룡사사적기』를 편찬할 무렵 동시에 만든 가짜 경전 『상법멸의경』에서는 말법시대 미륵신앙을 말하고 있다. 넷째, 다른 논고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자세히 서술하진 않았지만, 18세기 설송 연초를 비롯한 편양파 불교도들은 불교계의 부흥을 이끌고자 하는 종교적 열정에서 영남 사찰들의 역사를 많이 가공하였고, 관룡사도 그 가운데 한 곳이었다. 용선대불상의 명문은 사실 관계를 추적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논증이 어렵지만, 약사전 대좌와 같은 배경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근거에서 현재 관룡사에 있는 석불좌상 두 구의 명문은 조선 후기, 좀더 구체적으로는 18세기에 추각된 것으로 보았다.

관룡사의 승려들은 관룡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약사전을 ‘永和 5년(349)’에 짓기 시작하였다고 하고, 지금은 사라진 약사전불상을 ‘大曆 7년(772)’에 만들어진 미륵불상이라고 말하면서 신도들을 이끌었을 것이다. 사찰의 유구한 역사를 내세워 ‘전통’을 강조하는 방식은 조선 후기 불교계가 민중들을 교화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최근 왕경이 아닌 지방에서의 고고 발굴 성과가 축적되고 목간 등 물질 자료가 늘어나면서 지방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 자료는 지방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녕의 경우 「述亭里東三層石塔」을 제외하고는 현존하는 불교 자료가 9세기 이후의 것으로 편년되고 있다.⁵¹⁾ 술정리 동탑과 서탑이 건립시기가 다른데, 동탑은 왕경

51) 문화재청에 등록된 창녕 지역 불교 문화재로는 「인양사조성비」를 비롯하여 「述亭里西三層石塔」, 「寶林寺址三層石塔」, 「舍里石造光背」, 「松岫洞磨崖如來坐像」, 「法華寺多層石塔」, 「兔川里三層石塔」 등이 모두 9세기 이후의 것으로 비정되고 있다. 창녕의 고려시대 불교문화재로는 「관음사석등」, 「관음사미륵불비상」, 「석불사석조보살입상」, 「도천삼층석탑」, 「직교리단간지주」, 「약사전삼층석탑」, 「구계리석조여래좌상」 등이 있다(창녕군

에 8세기 후기에 등장하는 석탑들과 유사하고,⁵²⁾ 서삼층석탑의 경우, 무장사지 석탑 계열로 분류되는 8세기 말~9세기 초의 석탑들과 같은 양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계통을 따져볼 때, 왕경의 문화가 청도를 거쳐 창녕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⁵³⁾ 이처럼 창녕의 불교 문화는 8세기 후반부터 왕경 문화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창녕을 비롯한 지방 불교 문화가 변모하는 배경을 고찰하고, 나아가 신라시대 지방 문화의 보편성과 고유성을 새롭게 규명해보고자 한다.

논문투고일 : 2021.1.26. 심사개시일 : 2021.1.28. 심사완료일 : 2021.3.2.

청 홈페이지 참조).

52) 박경식, 2004 「신라 전형기 석탑에 대한 소고」 『문화사학』 21, pp.467~468.

53) 김지현, 2019 「경주 무장사지 삼층석탑의 조영계획과 동계열의 석탑 고찰」 『불교미술사학』 27, pp.174~177.

참고문헌

『三國遺事』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

『觀龍寺事蹟記』(하일식 1997 논문)

『八公山桐華寺事蹟』(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김방룡, 2017 「조선 후기 미륵신앙의 형성과 전개」 『한국불교사연구』 12

김용태, 2019 「환성 지안의 종통 계승과 선교 융합」 『남도문화연구』 36

김주태, 1965 「觀龍寺大雄殿上樑文」 『美術史學研究』 63·64

김지현, 2019 「경주 무장사지 삼층석탑의 조영계획과 동계열의 석탑 고찰」 『불교미술사학』 27

김창겸, 2013 「신라 승려心地 연구-『삼국유사』 「心地繼祖」와 관련하여」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34

남동신, 2001 「조선 후기 불교계 동향과 『상법멸의경』의 성립」 『한국사연구』 113

남재우, 2012 「기록으로 본 고대 창녕지역의 정치적 위상」 『석당논총』 53

박광연, 2020 「가지산 石南寺의 道義 창건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불교학보』 91

박경식, 2004 「신라 전형기 석탑에 대한 소고」 『문화사학』 21

박선영, 2012 「朝鮮後半期 彌勒佛掛佛圖 研究」 『강좌미술사』 39

백승충, 1995 「창녕의 연혁과 문화」 『한국민족문화』 7

윤선태, 2005 「新羅 中代末~下代初의 地方社會와 佛教信仰結社」 『신라문화』 26

이병욱, 2019 「조선시대의 미륵사상과 신앙의 4가지 유형」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1

이용운, 2020 「19세기 후반 영남의 喚醒系 僧侶門中과 四佛山畫派 畫僧」 『남도문화연구』 39

임영애, 2011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통일신라 수용과 전개」 『신라문화』 38

임영애, 2016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의 새로 발견된 '명문'과 '양식' 문제」 『신라문화』 47

장동표, 2000 「조선 후기 밀양 표충사(表忠祠)의 연혁과 사우(祠宇) 이건 분쟁」 『역사와현실』 35

정병삼, 1996 「9세기 신라 佛教 結社」 『한국학보』 22-4

정현숙, 2014 「창녕지역 신라금석문의 서풍」 『서예학연구』 24

- 최선희, 2013 「조선 후기 숙종대 황해도 지역의 '生佛' 사건」 『역사학연구』 50
- 최성은, 2009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소고-造像銘文과 중대신라 불교조각」 『신라사학보』 16
- 하일식, 1997 「창녕 관룡사의 石佛臺座銘과 『觀龍寺事蹟記』」 『한국고대사연구』 12

Abstract

A Review of the inscription of the Stone Buddha Statue
in Gwallyongsa Temple in Changnyeong

Park, Kwang-Youn

The pedestal of the Stone Buddha seated statue in the Yaksajeon Hall of Gwallyongsa Temple in Changnyeong is inscribed with the Daeryeok 7th year (772), and the pedestal of the Stone Buddha seated statue in the Yongseondae is inscribed with the Gaewon 10 (開元十). These two pedestal statements were regarded as essential materials for the local culture of Silla in the 8th century. However, In this paper proved that the inscription was engraved additionally in the 18th century.

The argument has four points.: First, the “Daeryok 7th year” also appears in *Palgongsan Mountain Donghwasasajokki*, which the academic community does not recognize as a historical fact. Second, although it was written in the name of ‘Seongnae(成內)’, it is not a sentence of Yi Du from Silla. Third, among the stone Buddha statues of Silla, there is no case of the inscription of ‘Miruk(彌勒)’, and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Maitreya faith in the 8th century Changnyeong area. On the other hand, the fake scripture, *Sangbub Meolui Geong(像法滅義經)*, which was made at Gwallyongsa Temple in the 18th century, preaches the belief of Maitreya in the latter dharma era. Fourth, the history of Buddhist temples in Yeongnam region was processed by the Pyonyang branch, including Seolsong Yeoncho, which had long been resided at Gwallyongsa Temple, to lead the revival of the Buddhist temples were one of them.

It was challenging to prove the inscriptions of Yongseondae’s pedestal’s inscriptions because there was no trace of the relationship, but it was judged that it had the same background as the Yaksajeon Buddha statu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erve the explanation of the local culture of Silla in the early and mid 8th century based on the inscriptions of two stone Buddha seated statues currently in Gwallyongsa Temple.

Key words : Silla Buddhism, Maitreya faith, Gwallyongsa Temple, local culture, Stone Buddha seated statue